

1/12(수) 에스라 묵상 8

에스라 5:1-5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시작된 성전 재건은 약 15년간이나 중단됩니다. 하지만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사마리아인들과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인내함으로서 끝내 좋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민 23:19,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때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다시 새로운 힘과 용기, 그리고 믿음을 불어넣어 주었던 것은 바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활동입니다. 이들은 구약 시대에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바벨론 포로 후기 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성전 건축의 재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과 격려에 힘입어 성전 재건이 재개됩니다. 본문은 이 일이 다시 쉽게 재개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학개서에 보면 성전 재건이 중단된 기간 동안 유다 사람들은 모두 자포자기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페르시아 왕들의 반대로 인해 성전 건축이 오랫동안 중단되면서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근처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옆딘데 덮친 격으로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그들의 생활은 매우 궁핍했습니다(학 1:6,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듯하지 못하며 일꾼이 삶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학개 선지자는 이러한 백성들의 행위를 책망하면서 가난의 원인이 그들의 영적 상태에 있다고 지적합니다(학 1:4,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나”; 10-11,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즉,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유다 백성은 이제 성전 재건에 대한 열심 뿐만 아니라 포로 귀환에 대한 감격마저 시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왕 2년 (B.C 520년)에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학 1:8,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2:4, “..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2:7-9,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것이요 금도 내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이러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15년 만에 성전 건축 재개를 시작하게 됩니다(학 1:14,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하지만 이 일도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아니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을 관할하는 총독 닷드내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

자들의 명단을 조사하고 성전 건축의 타당성을 파악해 달라는 보고서를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에게 보냅니다. 이처럼 유브라데 강 건너편의 총독 닷드내의 방해에 직면하자 또다시 다리오 왕의 답장을 앞두고 용기를 잃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는 지난 과거 실패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가랴 선지자는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진 스룹바벨을 격려하고 그에게 다시 확신을 주었습니다(속 4:6-7상,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속 4:9,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공동체의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하셨지만 특히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예수아에게 확신을 심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모세에게 주셨던 동일한 약속으로 그에게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수 1:5,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또, 여호수아와 동역자인 갈렙과 같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은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과 크고 견고한 성읍인 헤브론을 장악하게 하셨습니다(수 14:12,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 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당시 갈렙이 연령이 높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수 14:14하, “..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좃았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믿음의 확신과 주를 신뢰하는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실패가 또 우리의 방해의 기억 등등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길과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한국을 위한 기도:** 국가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국민들을 확신과 지혜를 가지고 잘 다스리며 잘 섬길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위해서 중보합니다.
-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 위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관리 위원회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 4.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대만 정안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